

글로벌시대 통계의 역할과 통계환경 개선



尹 英 大
통계청장

지금 세계는 점점 더 글로벌(Global)화 해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시간차(時間差)와 공간차(空間差)의 개념을 없애고 있다.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은 모든 정보의 유통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국가간·지역간 거리도 없애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워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차이가 무의미해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는 점점 더 글로벌화 해가고 있고 모든 정보의 유통도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된 것이다.

세계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세계의 국가들은 경제, 사회, 환경, 보건 등의 각 분야에서 더욱 빠르고 긴밀하게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간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의 중요한 도구인 공통된 언어가 필요하다. 통계야말로 이러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구촌의 공통언어(Common Language)의 하나인 것이다. 통계를 통하여 한 나라의 구조와 활동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통계는 인구구조, 경제

활동, 기타 각종 사회현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지구촌 전체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각 나라의 총생산(GDP)이나 물가, 고용, 인구 등에 대한 통계가 각기 다른 개념과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나라마다 다른 해석을 하

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서로의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안되는 경우와 같다. 통계가 국제적 언어의 하나로 널리 사용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동일한 개념과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어

야 할 것이다. 같은 통계에 있어서 개념과 기준이 동일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된 기준의 작성에 필요한 것이다. 지구촌이 글로벌화 해지면 질수록 공통기준의 설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공통기준의 설정 즉, 각 분야의 표준분류를 제정하고 표준작성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에서는 각 분야별 국가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통계의 개념, 범위, 조사방법 등에 관한 공통된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을 작성하여 각 국가가 이에 맞는 통계를 작성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제기준으로 작성된 미국의 인구통계나 인도의 보건통계, 브라질의 환경통계는 어느 나라의 이용자에게나 공통적으로 쉽게 이해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계 또한 전세계 이용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국

제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는 한 사회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국가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국가정책과 기업경영이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과 같은 구실을 한다. 즉, 통계는 바다의 항해에 필수적인 나침반과 같다. 각 나라가 원하는 목적지로 항해하도록 도와주어 국제화를 가속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화시대에서 이러한 통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작성되는 모든 통계가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1996년말 OECD가입과 함께 요청 받은 약 60종의 통계도 아직 개선·보완하거나 신규 개발해야 할 분야가 남아있다. 또한 국제적 기준이 없는 분야도 있다. IT(Information Technology)나 BT(Bio Technology) 분야처럼 아직 국제기준이

통계에 관한 기초인프라를 강화하고, 선진외국과의 상호교류를 추진하여 통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중인 분야도 있다.

보건복지통계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OECD조사표를 입수·분석하여 OECD 요청기준에 맞는 통계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OECD요청 보건통계와 사회지출통계의 항목수는 총 811개(2001년 기준)이지만, 이중 약 49%정도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제공 못하는 통계는 보건정책 입안시 필요한 질병통계, 개업전문의 현황, 활동약사수 등이다. 또한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보건통계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자 각국의 표준화된 보건통계지표를 수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출조차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통계의 경우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조속한 개발·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계청, 한국은행,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해당 기관에서 관련통계를 작성·관리하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통계를 비롯한 각 분야 통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서는 각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통계관련 기초 및 전문인력의 확충이 요청된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을 제외한 대다수 정부기관의 통계전담인력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도 작성통계는 26종(2000년 기준)인 데 반하여

주무부서인 정보화담당관실의 통계인력은 5명밖에 안되어 기초 및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기관에 통계조직의 설치 및 확대가 요청된다. 중앙정부기관도 통계전문조직이 있는 부서가 드물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계담당자가 시·도에는 평균 6.5명, 시·군·구에는 보통 1~2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이 또한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통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국제화시대에 통계업무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통계분야에 보다 많은 인력의 배치와 조직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의 통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제출통계항목의 숫자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통계에 관한 제반환경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통계에 관한 기초인프라를 강화하고, 선진외국과의 상호교류를 추진하여 통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분야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통계가 국내 보건복지의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